

# 화두, 서양의 논리·이성과 통섭하다

## 서구학자들이 본 간화선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해외석학들은 이성·논리·합리성을 지향하는 서양인 특유의 사고방식으로 바라본 간화선을 조명했다. 또한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간화선을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로버트 샤프(UCLA)는 "대승 사상은 조주의 단호한 '없다'의 핵심에 놓여 있다. 이 '없다'는 결국 개의 불성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그에게 놓인 개념의 덫을 피하기 위한 수사적 전략이다"고 설명했다.

샤프 교수는 "서구에서 중국과 일본의 선불교에 관한 인기 서적들은 공안을 비논리적인 역할 또는 수수께끼라고 주장하면서, 이것들은 지적 능력을 방해하고 단절시켜 사고를 억누르고 수행자에게 깨달음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며 "최근 몇몇 학자들은 선 공안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선에 대한 도구주의적 관점이 역사적, 민족학적 기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샤프 교수는 또 "비록 공안 양식의 제도적인 배경과 문화적 역사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진전이 있어 왔지만, 선 공안의 교리상, 해석상의 내용을 해독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자들이 공안을 해석의 형태로 다루려고 하지 않는 태도는 공안 문헌에 대한 이전의 효과적 신비화로 인해 생겨난 확고한 전통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 샤프 교수의 분석이다.

샤프 교수는 "학자들의 그러한 태도는 잘못 형성됐으며 일부 공안들은 교리적 취지를 복원할 수 있다"며 "하지만 쉬운 작업은 아니다. 공안들은 철학적으로 섬세하고 해석학적으로는 기교적이기 때문이며, 저자들이 모호한 암시나 기지에 찬 의상, 그리고 능숙한 재담을 즐겨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샤프 교수는 '조주의 깨'를 분석하면서 공안의 특징을 설명했다. 그는 "공안은 명백하게 불교, 문화, 교리, 변증법과 밀접한 관련을 전제로 한다"며 "많은 공안들은 공(空)이 형상의 세계를 초월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은 적절히 파악된 형상 세계라는 주장이다.

샤프 교수는 "대승 사상은 조주의 단호한 '없다'의 핵심에 놓여 있다. 이 '없다'는 결국 개의 불성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그에게 놓인 개념의 덫을 피하기 위한 수사적 전략이다"고 설명했다.

샤프 교수는 "대승 사상은 조주의 단호한 '없다'의 핵심에 놓여 있다. 이 '없다'는 결국 개의 불성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그에게 놓인 개념의 덫을 피하기 위한 수사적 전략이다"고 설명했다.

샤프 교수는 "선 공안들은 상당(上堂)의례를 통해 불설의 전형적인 모범을 이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특징적인 발언과 대화들은 선 변증법에 의해 형식과 내용(손가락과 달)이 궁극적으로 분리 될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샤프 교수는 "선 공안들은 상당(上堂)의례를 통해 불설의 전형적인 모범을 이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특징적인 발언과 대화들은 선 변증법에 의해 형식과 내용(손가락과 달)이 궁극적으로 분리 될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샤프 교수는 "선 공안들은 상당(上堂)의례를 통해 불설의 전형적인 모범을 이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특징적인 발언과 대화들은 선 변증법에 의해 형식과 내용(손가락과 달)이 궁극적으로 분리 될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샤프 교수는 "선 공안들은 상당(上堂)의례를 통해 불설의 전형적인 모범을 이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특징적인 발언과 대화들은 선 변증법에 의해 형식과 내용(손가락과 달)이 궁극적으로 분리 될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샤프 교수는 "선 공안들은 상당(上堂)의례를 통해 불설의 전형적인 모범을 이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특징적인 발언과 대화들은 선 변증법에 의해 형식과 내용(손가락과 달)이 궁극적으로 분리 될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로버트 샤프(UCLA)를 리대 교수

지시적인 방식의 명상법은 대체로 생각을 바로 쫓아내지만 비지시적인 형태의 명상법에서는 생각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은 허용해도 생각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아이프링 교수는 "감산의 명상법은 비록 궁극적으로는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후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이프링 교수는 "감산의 다양한 명상의 형태도 살폈다. 감산은 그의 법문에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정념수행 △의미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 화두, 불명(佛名), 진언 등 염송하기 △명상의 대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참구하기 △명상하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명상 대상이 무엇인지에 관련된 의문뿐 아니라 명상 대상이나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의문 갖기 등을 가르쳤다.

아이프링 교수는 "감산의 수행법은 궁극적으로 임의로 떠오르는 생각의 방해물 받지 않는 마음의상태를 이끈다는 것을 상징한 면에서는 다른 불교나 비불교 수행자들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 한·중·일의 간화선

해인 스님(해인사)은 "돈오의 점진적 체할"을 주제로 서구 불자들에게는 생소한 한국 간화선에 대한 현대 한국선사들의 다양한 가르침을 소개했다.

송담 스님은 수행과 호흡을 조화시키는 수행법을 가르쳤다. '이 뭣고?'를 듣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3초 동안 머물렀다 내쉬는 '이 뭣고'를 듣고 다 내쉬면 숨을 들이마시되, 들이마시면서 아까 그 '이 뭣고' 한 그 의식의 여운이 그때까지 오도록 조용하게 관조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 한국에서 송담 스님의 특징적인 교습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8년 간 정좌불과 수행을 한 것으로도 유명한 성철 스님은 "화두 수행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다. 화두 의식은 망상에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되고 적적(寂寂)한 마음상태를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해탈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성성(惺惺)한 정신적 상태도 함께 만들어 낸다.

성철 스님은 수행자의 깨달음의 정도를 살피기 위해 삼단수행이라고 알려진 세 가지 질문을 했다. △중중일여(中一如) △몽중일여(夢一如) △수면일여(寐一如)가 그것이다. 해인 스님은 "성철 스님은 삼

단 수행을 거치지 않은 깨달음은 돈오가 아니라 부정을 함으로써 진정한 돈오로 가는 길은 점진적인 세 단계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으로 가르쳤다"고 말했다.

김방홍 교수(충남대 철학과)는 주제발표 '한국 근·현대 간화선사들의 보조선에 대한 인식'에서 경허 이후 대부분의 선사들은 돈오점수와 선교일치 간화선 등을 회통하는 보조선을 수행의 지침으로 받아들여 왔으며, 특히 효봉과 구산에 의해 송광사를 중심으로 보조선이 크게 선포돼 왔음을 밝혔다.

나타샤 헬러 박사(하버드대)는 '거울을 뒤는 도구'를 주제로 중국 원나라시대의 승려인 중봉명본(仲峰明本 · 1263-1323) 선사가 재가신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칠 때 들었던 화두를 고찰했다.

시지루 스님(포모나대학 종교학과 부교수)은 '부처를 염(念)하는 이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허운 선사(虛雲 · 1840-1959)와 현대 중국 불교의 화두참구를 조명했다.

시지루 스님은 "허운 선사는 20세기로 빠르게 전환하는 동안 제국주의 중국의 몰락과 현대 중국의 건립이라는 사회정치적 대변동기를 거쳐 선을 가르치고 화두를 설파했던 뛰어난 승려"라며 "전통적인 선 기법을 정교하게 재구성했으며, 관적으로 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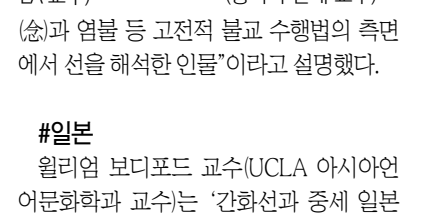
해인 스님(해인사)을 리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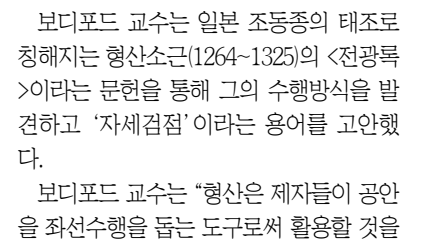
김방홍(충남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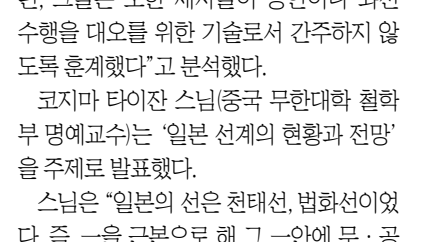
나타샤 헬러 박사(하버드대)



시지루 스님(포모나대 교수)



코지마 타이잔 스님(중국 무한대 교수)



윌리엄 보디포드(UCLA 아시아언어문화학과 교수)

윌리엄 보디포드 교수는 "간화선과 중세 일본의 자세검점(仔細檢點)수행"을 주제로 발표했다. 보디포드 교수는 일본 조종종의 태조로 칭해지는 형산소근(1264-1325)의 <전광록>이라는 문헌을 통해 그의 수행방식을 발견하고 '자세검점'이라는 용어를 고안했다.

보디포드 교수는 "형산은 제자들이 공안을 좌선수행을 돕는 도구로서 활용할 것을 기대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편, 그들은 또한 제자들이 공안이나 좌선수행을 대오를 위한 기술로서 간주하지 않도록 훈계했다"고 분석했다.

코지마 타이잔 스님(중국 무한대학 철학부 명예교수)은 '일본 선계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스님은 "일본의 선은 천태선, 법화선이었다. 즉, 이를 근본으로 해 그 안에 무·공·불심·불성·깨달음 등을 동일시 해 집어넣는다고 하는, 이를 근본으로 하는 일찍 일찍의 선이었다"고 설명했다.

## 한국 전통선원 ... 월암 스님

월암 스님(한산사 응성선원장)은 주제 발표 '한국불교 전통선원의 현황과 수행'에서 한국 선불교의 역사를 조명했다.

한국의 선불교는 신라 말 도의국사가 중국의 조사선(祖師)전래하면서 시작됐다. 나말여초에 구산선문(九山禪門)이 차례로 개창돼 조계, 마조, 석두 등의 조사선종이 이어졌다.

고려 중엽 대가 국사에 의해 천태선(天台)이 전래됐고 후에 조계선(曹溪)과 함께 선종으로 통합됐다. 고려 무신정권 하에 보조선사에 의해 <간화결의론>이 저술되면서 간화선이 정식으로 소개되고, 그의 제자 진각해선에 의해 간화선 수행이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고려 말 태고와 나옹 두 선사가 화두 참구에 의해 개조됐다. 중국에 들어가 각각 석유·평산으로부터 임제정맥을 사사받고 돌아와 간화선종을 진작하게 됐다.

조선조에 들어와 간화선을 종지로 행화(行化)한 벽송지엄에 의해 불조정진(佛祖正傳)의 선포가 계승되고 그의 사법 부옹영관의 문하에 청허후정과 부휴선수가 배출되면서 조사선에 바탕을 둔 간화선종이 선수행의 주류를 형성했다. 이후 환성지안을 거쳐 조선 말 경허와 용성에 의해 다시 간화선종이 진작해 해인사, 범어사, 송광사 등을 중심으로 선원이 개원되고 운수남자의 선수행 풍토의 기틀이 마련됐다. 일본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불교화의



월암 스님

월암 스님(한산사 응성선원장)은 주제 발표 '한국불교 전통선원의 현황과 수행'에서 한국 선불교의 역사를 조명했다.

도서출판 탐구사 전화 02) 702-3557 팩스 02) 702-3558 구입처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 24, 운주사, 주요 불교서점

**성엄선서 4**  
대의단(大疑團)의 타파, 무방법(無方法)의 방법  
- 화두선과 목조선의 요체  
성엄선사(聖嚴禪師) 말씀 / 대성(大晟) 옮김 416쪽 / 18,000원

**수행 불자들의 필독서 - 성엄선서 시리즈**

1. 마음의 노래 - 우두법용 선사의 '심명' 강해, 320쪽 / 15,000원
2.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 '신심명', '참동계', '보경심매가' 강해, 288쪽 / 12,000원
3. 지혜의 검 - '중도가', '반야심경' 강해, 320쪽 / 13,500원
5. 선의 지혜 - 불교에 관한 문답(근간)

\*성엄선서는 계속 출간됩니다.

## 한국불교가 몰랐던 중국(대만) 선불교의 진수!

중국에서는 선종의 맥이 끊어졌고 선종의 정통은 한국에 있다고 믿은 것은 한국 불교도들의 근거 없는 신화였다.

대만을 중심으로 일약 부흥하는 중국선의 중심인물 성엄선사, 침체에 빠진 한국선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성엄선사의 법문집 시리즈 제4탄!

**이 책의 주된 내용**

- 화두와 목조에 착수하기 전의 예비 수행에 관한 참신한 안내
- 간명히 정리된 화두선 3단계와 처음 소개되는 목조선 3단계
- 선 수행자들과 선 수행 지도법사가 알아야 할 핵심 사향의 설명
- 감산덕정, 황룡오신, 대혜종교, 광지정각 선사의 법에 대한 깊이 있는 주석

성엄선사(聖嚴禪師, 1930-2009)  
• 동서양을 넘나들며 중국선(Chan)을 세계에 알린 대만불교의 중흥조  
• 계·정·혜 삼학을 두루 겸비하고 선명을 드날린 당대 최고의 고승